

자동차 흠집 제거, 이렇게 해 보세요!



자동차를 구입 후 시간이 흐르다보면 여기저기 미세한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손재주가 없어도 큰돈 들이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자동차 흠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컴파운드

일명 연마제라고도 불리는 컴파운드는 자동차에 생긴 미세한 흠집, 또는 세차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얼룩 등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고성능 차량 흠집 제거제이다. 컴파운드에 포함된 연마제 성분이 차량의 도장면에 닿아 흠집이 없는 부분을 아주 미세하고 얇게 갈아내 흠집이 난 부분을 덮어준다.

컴파운드를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극세사 천이나 스폰지에 컴파운드를 콩알만한 크기 정도로 조금만 묻혀서 원을 그리듯 골고루 문질러주면 된다. 이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세게 문지를 경우 2차 흠집의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야 한다.

■ 자동차 붓펜

자동차 붓펜을 구매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차량에 맞는 페인트 색상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제조사별로 다른 색상 코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닛 안쪽이나 운전석 뒤편 유리, 운전석 좌석 하단 부분 등에 표기되어 있다.

색상 확인 후 자동차 붓펜을 구입했다면 먼저 흠집이 난 부분의 먼지나 얼룩,

기름, 수분, 녹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페인트를 상하로 흔들어 용제가 잘 섞이게 해 흠집이 난 부분에 가볍게 1-2회 정도 칠해주고, 페인트가 마르고 나면 2-3회 더 반복해서 칠해 주면 된다.

■ 물파스

물파스를 이용해서도 자동차 잔흠집을 제거할 수 있다. 물파스는 차체에 파인 흠집이나 스크래치 보다는 다른 차량에서 묻어난 페인트 등으로 인한 흠집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저 흠집이 생긴 부위를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먼지를 제거한 후, 페인트가 묻은 부위에 물파스를 톡톡 두드려 주면서 물파스액을 충분히 도포해 준다. 그런 다음 마른 수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면 보기 싫게 묻어 있던 페인트 자국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때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파스를 도포하거나, 수건으로 문지를 때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차의 도장면에까지 손상이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치약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사용하는 치약으로도 자동차 흠집을 제거할 수 있다.

칫솔에 치약을 소량만 묻혀 흠집이 생긴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말끔하게 제거되는데, 이는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연마제 성분이 컴파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진=shutterstock

자동차의 눈 '헤드라이트', 맑게 유지하려면

자동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헤드라이트는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외관을 좌우하는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흐릿해지고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헤드라이트는 어떤 이유로 변색이 일어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금호타이어(blog.kumhotire.co.kr)가 안내했다.



■ 헤드라이트 변색 원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렇게 변색되거나 뿌옇게 변해 빛이 약해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헤드라이트의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자외선이다.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자동차의 피부 즉 겔으로 드러나 있는 도장면, 헤드라이트 등은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헤드라이트의 표면이 변색된다. 헤드라이트의 표면의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는 가볍고 단단하지만 자외선에는 취약하다. 그래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누렇게 혹은 뿌옇게 변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UV코팅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팅도 벗겨지게 마련이다.

산성비도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이다. 헤드라이트를 구성하는 재질은 산성에 약하다. 비가 온 후 헤드라이

트 표면에 남아있는 산성비가 증발하면서 변색이 진행된다. 따라서 비가 온 날 운전을 했다면 주행 후 마른 타월 등으로 헤드라이트의 물기를 닦아 주는 것이 좋다.

스톤칩도 헤드라이트 변색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주행 중에 생기는 흙먼지나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들은 헤드라이트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히고 헤드라이트를 뿌옇게 만든다.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파손될 수도 있다.

■ 헤드라이트를 보호하는 방법

자외선으로부터 헤드라이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실내 주차를 해야 한다. 실외 주차 시에는 그늘 아래 주차하는 것이 좋다.

또 스톤칩 등으로 작은 흠집들이 생겼다면 간단한 흠집 제거에 사용하는 '컴파운드'를 이용해 흠집을 제거할 수 있다. 헤드라이트 먼지를 제거한 다음, 부드러운 타월에 컴파운드를 묻히고 헤드라이트를 닦아준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타월로 한 번 더 닦아주어야 먼지나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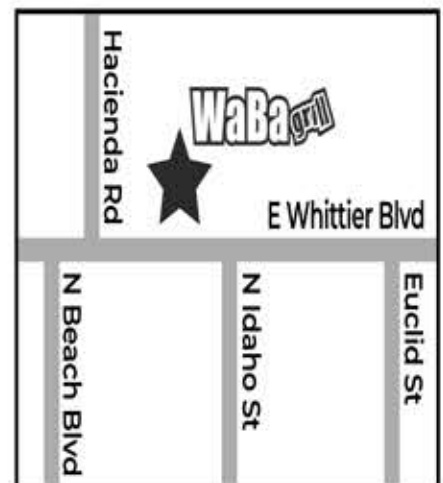
UV코팅제를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 헤드라이트를 생산할 때 UV코팅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팅이 벗겨진다. 컴파운드로 흠집을 제거하고 UV코팅을 추가로 해주면 좋다.

사진=shutterstock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